'이탈리아 NO.1 스파클링 생산자 간치아의 데일리 와인'

프로세 블랑

P.R.Ose Blanc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포도품종	트레비아노 외 화이트 품종 블렌딩		
알코올	11.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6-8℃		
테이스팅 노트	사과, 꽃 등의 다채롭고 집중도있는 아로마를 갖고 있으며 연하고 밝은 노란색을 띄고 있다. 부드럽고 신선하며 좋은 구조감을 갖고 있으며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지속력을 갖고 있다.		
페어링 TIP	익힌 해산물/흰 살 생선/채소(샐러드)/부드러운 치즈/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디저트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이탈리아 최초의 스파클링 생산자, '간치아'에서 선보이는 데일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프로세코처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생산되었다. 샤르멧 생산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17-18˚C의 조절된 온도의 탱크 안에서 첫번째 발효가 되었다. 그 후 15-18℃로 조절된 스테인리스 탱크안에서 Martinotti 발효 방식으로 약 25일간 발효 및 정제 기간을 거쳐 탄생하였다.

와이너리

1850년 설립 이후,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산업의 초석을 닦아 온 와이너리로서 전통이 빛나는 뛰어난 퀄리티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간치아의 지하 셀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스파클링 와인과 아페라티프 와인의 세계적인 거장이다.
또한, 1870년 이탈리아의 왕 비또리오 엠마누엘 2세가 간치아를 공식 와인 공급처로 지정한 것을 필두로 교황 피오 11세,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등 유럽의 로열패밀리들이 마신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모엣샹동을 쇼유한 LVMH의 장녀 델핀 아르노와 간치아의 알렌산드로 간치아가 결혼하면서 프랑스와 이태리의 No.1 스파클링 와인 제국의 결합으로 주목 받았다.
오늘날 간치아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내수 시장에서 No.1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일본,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세계 곳곳에서 No.1 아스띠 와인으로 통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